

나주시, 공산보건지소 치매안심센터 분소 내달 3일부터 운영

매주 월·목 오전10시~오후3시 비상근 배치 치매안심센터 운영 분석 후 확대분소 추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11월부터 공산면 보건지소에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소 설치의 센터 본소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면 지역 주민의 치매 예방·관리 프로그램 제공과 이에 따른 업무 분담 효율성을 증진하고

자 추진됐다.

보건소는 교통 인프라, 주민 접근성,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해 공산보건지소에 치매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을 설치하고 내달 3일부터 분소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운영 시간은 주 2회(월요일·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센터 분소에는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교대로 배치(비상근)된다.

또한 치매 조기검진, 치매 예방·관리 프로그램, 맞춤형 사례관리, 조호물품배부 등의 치매 통합서비스 일부를 제공한다.

보건소 통계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60세 이상 인구는 3만 6천984명으로 전체 인구(11만 5천818명)의 31.9%에 달한다.

이 중 분소(면) 관리지역인 공산,

문평, 다시, 왕곡, 동강, 반남면 60세 이상 인구 비율은 22.5%(8천325명)로 고령 주민의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치매 예방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나주시는 고령 주민의 돌봄 문화 확산과 더불어 행정복지센터, 지역 사회 자원을 연계한 치매 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성택 기자

영광군, 전남 귀농산어촌 박람회 참가 귀농귀촌 상담 등 종합적인 홍보활동 전개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최근 서울 aT센터(양재동)에서 개최한 2022 전남 귀농산어촌 고향사랑 박람회에 참가해 영광군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주최하고 전남일보와 도귀농어귀촌인연합회가 주관했으며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전국 최대 규모의 귀농산어촌 박람회다.

영광군에서는 귀농·귀촌정보 제공과 함께 지역 농특산물 등을 판매 전시와 영광군 귀농귀촌 정책 안내 등 귀농귀촌 상담을 했다.

또한 10월에 열리는 백수노을축제, 2022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등 종합적인 영광군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방문 상담한 50대 박모씨는 "막연하게 귀농을 꿈꾸고 있었는데

현실적인 조언과 구체적인 절차를 상담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내년도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신청을 통해 꼭 영광에서 귀농귀촌을 미리 체험하며 준비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람회에 함께 참여한 귀농협회장, 귀농업체, 청년마을, 어촌마을 등 관계자들은 "바쁜 일정에도 먼 곳까지 영광군수님께서 격려해주러 오시니 힘이난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영광군 홍보에 최선을 다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광군에 터를 잡아 열심히 살고있는 젊은 청년들을 보니 영광군의 미래가 밝게 느껴지고, 귀농인들을 위해 귀농귀촌 박람회와 귀농귀촌 유치지원 단계별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지역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기 기자

장성군, 국악경연대회 개최

장성군은 오는 15일 제4회 '장성 전국 국악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성 전국 국악경연대회는 재능 있는 국악인들을 발굴하기 위해 사단법인 매현전통예술보존회에서 추진하는 행사다.

보존회는 전남 무형문화재 가야금병창 보유자인 김은숙 이사장이 설립했다.

전국의 모든 국악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야금 병창과 판소리 2개 부문에서 각축을 벌인다.

초·중·고등학생부와 신인부, 일반부(대학생부 포함)로 나뉘어 개최된다.

참가 신청은 비대면으로 받는다. 7일까지 이메일(maehon159@naver.com)로 경연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경연 당일인 15일에는 예선, 본선 심사를 통해 대회 최고상인 전라남도지사상을 시상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존회 네이버카페(<http://m.cafe.naver.com/ca-fe/1028jino>)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올해로 네 번째 개최를 맞이한 장성군 전국 국악경연대회가 예술인 양성과 전통문화 계승, 우리 음악 발전에 이바지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광중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단기 4355년 개천절인 지난 3일 화순읍 이십곡리 국조전에서 국조 단군 개천 대제를 봉행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개천 대제 봉행과 개천시 낭송, 개천송, 만세 3창 순으로 진행됐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 흥익인간 이념 계승 개천 대제 봉행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단기 4355년 개천절인 지난 3일 화순읍 이십곡리 국조전에서 국조 단군 개천 대제를 봉행했다고 밝혔다.

화순군이 후원하고 화순국조송모회(대표 정환담)가 주관한 이번 대제에는 구복규 화순군수, 하성동 화순군의회 의장, 유립, 기관사회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여해 국조 단군의 흥익인간 정신을 기념하는 시간

을 가졌다.

행사는 개천 대제 봉행과 개천시 낭송, 개천송, 만세 3창 순으로 진행됐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우리 민족이 코로나19 위기와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원천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흥익인간의 정신에 있다"며 "앞으로도 흥익인간의 높은 이상을 본

받아 군민이 화합하고 더불어 잘 사는 따뜻한 복지 공동체 화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천 대제는 국조 단군의 건국과 흥익인간 정신을 기리기 위한 행사로 한해 동안 땀 흘려 지은 햇곡식으로 제사상을 차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늘에 감사하는 우리 민족의 전통제례다.

/남호경 기자

담양,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공모 선정 임산부·만 2세 미만 가정 방문, 맞춤 서비스 제공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2022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해 이듬해부터 사업을 시행한다.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은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에 주기적으로 방문해 전문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누구나 평가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본 방문 대상의 경우 출산 후 8주 이내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상담, 신생아 성장 발달

확인, 수유·육아 환경과 같은 아기 돌봄 관련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우울감, 스트레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속 방문 대상의 경우 출산 전부터 아이가 24개월이 될 때까지 지속 관리하게 된다.

위기 상황 가구의 경우 읍·면 맞춤형 복지팀, 정신건강복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전문분야의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 체계적·통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담양군 관계자는 "생애초기 건강관리가 아동 건강의 시작점인 임신·영아기의 건강 수준 향상과 양육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종연 기자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
Go to Nature, Gurye

지리산과 섬진강의 풍요로움을 담은 구례군 로컬마켓

구례군 로컬마켓

구례군 로컬마켓

<https://smartstore.naver.com/guryeshop>